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에 지역의 목소리 듣는다

- 주민대표와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기 재개발 추진협의회 출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3기 재개발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16일(화)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유��히항만을 해양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인천항만공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1·8부두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원만한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을 인천광역시에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3개 기관의 공동사업 추진에 따라 새롭게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지역사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개발 추진협의회는 1기(2018~2020), 2기(2021~2023)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하며, 지역의 추천을 받은 지역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구의회, 지자체 등 40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사업추진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3기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본사업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980)
	항만연안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건 (044-200-5978)

